

한국 중학생의 창의성 정도와 영어 성취도와의 관계

마 지 현
(전남대학교)

Ma, Jee Hyun. "The Study of Korean EFL Middle School Students' Creativity and English Ability."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5.1 (2019): 331-348. This paper explores Korean EFL middle school students' level of creativity and whether there exist any creativity level differences depending on English achievement scores with 102 students. The participants' English achievement level was measured using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Achievement (NAEA) English scores, and they were assigned to basic ($N=21$), intermediate ($N=54$), or advanced ($N=27$) groups considering the scores. The Torrance Test of Creative Thinking (TTCT) was utilized as a measuring tool for creativity. The TTCT measures three factors of creativity, which are fluency, flexibility, and originality, and a MANOVA was utilized to check the participants' creativity levels. The participants obtained the highest scores in flexibility, followed by in fluency, and originality. Th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flexibility and fluency, and between flexibility and originality. The results indicated that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were familiar with producing ideas with diverse perspective but rather weak for creating unique and uncommon ideas. The findings also reveal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creativity depending on English achievement level. Overall, the basic group displayed significantly lower level of creativity across all factors of creativity compared with intermediate and advanced groups, suggesting the need to provide more effort for developing creativity of the students with low level English proficienc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EFL students, creativity, TTCT, English achievement, level differences

I. 서론

첨단 과학 기술의 발달로 우리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미래사회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동시에 더불어 살 줄 아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는 학생들의 잠재력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찾고 키워주는 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7차 개정교육과정에서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이 강조된 이후로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에 창의·인성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을 제시하였으며, 2011년에는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창의·인성교육 강조의 연장선으로 교육부는 2013년 교육 분야 국정과제 실천계획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통한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을 발표하였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 또한 이러한 교육과정상의 총론적 교육목표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 창의적 사고 역량을 6개 핵심 역량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형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개별 교과와 교육 목표임을 감안할 때, 영어 교과 또한 위의 교육과정 상의 교육목표를 내용 체계 및 성취수준, 교수·학습 방법, 평가에까지 녹아들게 함으로써 영어과 교육과정 목표인 균형 잡힌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이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김경한, 나경희(2014)와 한종임, 오혜진, 김영숙(2013)은 현 시점에서의 영어 교육은 세계화·정보화 시대에서 요구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힘써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성·인성 교육의 목표에 부합하고 나아가 영어 교과를 통해 창의성과 영어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창의성이 교육에 의해서 신장될 수 있다는 많은 학자들의 의견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영어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창의성 교육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영어교과가 다른 교과에 비해서 창의성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김경한, 나경희(2014)의 연구와 Cho와 Oh(2014)의 연구에서 드러난 바 있다. 게다가 영어 교과는 의사소통이 목적인 도구과목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외국어로서 영어를 학습하는 영어학습자들의 언어능력 수준을 높임으로써 창의성 및 인성을 배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은 외국어를 통해 타국의 문화를 이해하기 보다는 입

시 위주의 기능적인 외국어 학습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시험 위주의 교과 교육은 21세기가 원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과는 거리가 멀다.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은 미래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항목 중 하나이다. 영어교과에서 창의성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영어 능력의 함양뿐만 아니라 창의성 배양을 교과목 성취목표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적절한 교수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연구자들은 교육현장에서 학습자의 창의적 사고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사의 발문, 창의적 기법, 창의적 교육 방법 등을 제기하고 있다(조연순, 성진숙, 이해주, 2008; 한종임 외, 2013; Guilford, 1956; Osborn, 1952; Torrance 1962; Weisberg, 2006). 하지만, 국내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방법이 실제 학습자의 영어 능력 및 창의력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적 연구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인 중학생 영어 학습자들의 창의성의 정도를 살피고, 이를 영어 교과 성취 수준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추후 구체적 교수법 개발 등에 있어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인 중학생 영어 학습자들의 창의성 정도는 어떠한가?
2. 한국인 중학생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성취도 정도에 따른 창의성의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II. 연구 동향

학자들에 따라 창의성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과 해석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의성의 공통된 특성은 새로움과 과제조건을 충족시키는 적절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또한 창의성은 창의적 과정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이끌어 내도록 한 성격 특징과 동기와의 그 연관성을 가진다(Weisberg, 2006). 창의성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은 1950년 미국심리학회 회장이었던 Guilford가 당시 기초연설에서 창의성을 언급하면서 본격화 되었으며 이후 창의성의 중요성은 교육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주어진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도덕적 딜레마를 나눔과 배려를 통해 극복해야하기 때문에 인성 교육과 창의성 교육은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다. 그리고 창의적 결과물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협동과 경쟁의 조화를 통해 만들어 낼 수 있는 경우가 많기에, 협동과 소통의 중요성 역시 창의성 교육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따라서 최인수(2011)가 주장하듯이 창의·인성교육에서는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의 독자적인 기능을 중요시 하는 동시에 두 교육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구비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창의적 교육요소와 인성 교육 요소, 그리고 학습이나 학교와 관련된 문화 및 풍토 요소의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민귀영, 김찬호(2016) 또한 미래사회를 성공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육성이야말로 개인과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을 역설하였다.

창의·인성교육이야말로 21세기 미래사회에서 개인과 국가의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여, 이미 여러 나라에서 교육과정에 있어서 창의성 교육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이다. 영국의 국가교육과정에서는 1999년에 창의성 및 문화교육 국가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Creative and Cultural Education: NACCCE)를 중심으로 ‘창의성’이 모든 교과교육의 바탕이 되어야 할 기본적 요소로 제시해왔다(조연순, 정혜영, 백경미, 2010).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전의 교육과정이 규범과 지식 습득을 강조한 주지주의 인성교육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면, 7차 개정 교육과정 이후부터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강조하고자 하였으며(유한구, 2007), 본격적으로 창의·인성교육의 도입을 시도한 것은 7차 개정 교육과정부터로 보고 있다(김경한·나경희, 2014; 박춘성, 2010; 유한구, 2007). 이와 같은 교육과정의 변화와 발맞춰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첫째, 학생의 잠재력과 가치관을 찾고 키워주는 창의성과 인성교육으로의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하며, 둘째, 국가발전전략을 창조적 인적자본으로 변화시켜야 하며, 셋째, 2008 개정 교육과정, 입학사정관제 등의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해 전반적 교육 환경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추진배경을 바탕으로 2009년에 창의·인성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을, 2011년에

는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을 제시하면서 창의·인성교육을 더욱 강조하였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창의·인성교육의 포괄적인 목표가 제시되었으며(교육과학기술부, 2009; 박춘성, 2010; 유경훈, 박춘성, 2013; 유한구, 2007), 실제로 각 교과에서도 창의성 및 인성 신장을 위한 목표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였다. 2009년 개정 영어교육과정의 특징은 글로벌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과 함께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으며, 언어재료, 교수·학습 방법, 평가 영역에서 창의성과 인성이 중요한 요소로서 새롭게 추가되며 강조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그 개정 방침의 첫 항목으로 제시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 인재’의 양성이며(교육과학기술부, 2011), 이 목표를 바탕으로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영어로의 의사소통 능력 함양과 함께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설정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인성 교육은 교육목표에서 ‘창의와 인성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언어 재료에서 ‘교육과정 총론에서 강조한 창의와 인성교육 강조, 타인에 대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인성 등, 국가·사회적 요구사항(국가정체성, 다문화, 글로벌 사회) 확대 반영’ 등,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의사소통능력의 신장, 창의성 계발, 인성교육을 고려한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 및 운영(토론학습, 협동학습, 프로젝트학습, 모둠학습, 문제해결학습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평가영역에서는 ‘창의성·인성, 고등사고능력 등의 평가를 지향하고, 창의성·인성함양을 위한 수행평가의 비중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도 이와 궤를 같이 하며 자기 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과 함께 창의적 사고 역량을 6개 핵심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제2언어 교육에서의 창의성 신장 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어왔고(김영숙, 한종임, 오혜진, 2013; 한종임 외, 2013; Cheng, 2011; Cropley, 1994; Horng et al., 2005; Hu & Adey, 2002; Kind & Kind, 2007), 특히 국내에서는 2010년도 이후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실험 연구가 이루어져오고 있다(전준현, 2014; Ahn, 2012; Cho & Oh, 2014; Ma, 2017; Roh, 2012; Yang, 2013). 예를 들어, Roh(2012)는 설문지를 활용하여 대만인 영어 학습자와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교실 내에서의 창의성 신장 활동에

관한 인식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의 학습자 모두 영어 학습에 있어서 확산적 활동보다는 수렴적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구권 학습자와 차이를 드러냈다. Cho와 Oh(2014)의 연구는 확산적 사고에 기반을 둔 창의적 사고 전략 교수법이 한국인 대학생 학습자들의 영어 읽기 능력과 창의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그들은 이를 위해 창의력 테스트와 영어 읽기 능력 테스트, 그리고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창의적 사고 전략 교수를 받은 그룹의 학습자들이 영어 읽기 능력과 창의성 수준에 있어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최근 연구로 Ma(2017)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수자의 확산적 사고를 유도하는 발문이 한국인 중학생 학습자들의 창의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영어 읽기 능력 향상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영어 교과에서 창의성 발달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타 교과에 비해 미미한 실정이고 구체적인 창의성 신장 수업 모델 및 구체적 지도안 등의 개발과 관련된 실험 연구는 더욱 드문 것이 사실이다.

III. 연구 방법

3.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기존 창의성 향상과 관련된 연구가 주로 초등학생과 같은 어린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왔다는 점,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직접 대상을 연구 참여자로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한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총 102명의 학생들(남학생 49명, 여학생 53명)이 본 연구에 최종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모두 같은 학교의 학생들로 연구 당시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구성되었으며, 창의성 검사, 학교의 중간·기말고사, 국가수준 영어 학업성취도평가에 모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생들은 본 연구의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해 국가수준 영어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기초미달과 기초학력), 보통(보통학력), 우수(우수학력)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3.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기본 정보(예: 나이, 성별, 영어 학습 기간, 영어권 거주 경험 유무 등)를 묻는 설문 이외에 다음과 같은 도구들이 사용되었다. Torrance(1962, 1990, 1998)에 의해서 개발된 창의력 사고 검사(The Torrance Test of Creative Thinking)는 35개국 이상에서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창의력 척도로 두 가지 유형(A, B형)의 언어 검사와 두 가지 유형(A, B형)의 도형검사가 있다. Torrance 검사는 창의적 사고와 관련하여 신뢰도를 검증받아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검사로 (e.g., Jeon, 2015; Kaufman, Plucker, & Baer, 2008; Starko, 2010), 본 연구는 창의력과 영어 수준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므로 Torrance 언어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창의적 사고력 검사는 창의력의 세 가지 요인을 ‘유창성’, ‘융통성’ 및 ‘독창성’로 구분하고 있다. 유창성은 요구에 따라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 산출해 내는 능력을 의미하고, 융통성은 요구에 따라 다양한 관점의 아이디어와 책략을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독창성은 주어진 요구에 따라 평범하지 않거나 기존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해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Torrance 창의적 사고력 검사 보고서는 창의력 검사 결과를 이들 각 요인별로 ‘원점수’, ‘표준점수’ 및 ‘백분위 점수’를 시각적인 그래프와 함께 보여준다. 그리고 이들 3개 요인들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산출한 창의력의 평균점수, 즉 ‘창의력 지수’도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로 나타내준다. 이 검사는 여섯 가지 활동별(검사과제: 질문하기, 원인 추측하기, 결과 추측하기, 작품 향상시키기, 독특한 용도, 가상해 보기)로 ‘유창성’, ‘융통성’ 및 ‘독창성’ 점수가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Torrance 검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섯 가지 검사 활동은 각기 성질이 다르며, 그래서 창의력의 독특한 측면들을 평가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Torrance의 창의적 사고력 검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크롬바흐 알파(Cronbach's α)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다음으로는 한국인 중학생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성취도 정도에 따른 창의성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Achievement: NAEA) 영어 결과를 활용하였다. 국가수준 영어

학업성취도평가는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매해 전국 단위로 실시되는 것이다. 중학생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실시 대상으로 하고 전국적으로 참여한 전체 학생들의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학업 성취도 수준을 기초미달, 기초, 보통, 그리고 우수로 나누어 학교 현장에서 참고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이 시험은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되어진 상태이다.

3.3 분석 방법

수집된 국가수준 영어 학업성취도평가 점수, Torrance의 창의적 사고력 검사: 언어 결과 등과 같은 정량적으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SPSS 23.0을 사용하였고, 모든 분석의 검증은 신뢰도 95%(유의도 $p < .05$) 수준에서 실시하였다. 먼저 Torrance의 창의적 사고력 검사지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크롬바흐 알파(Cronbach's α)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참여 학생들의 창의성 정도를 살피기 위하여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활용하였고, 그 결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살피기 위해 대응표본 검정(Paired Samples test)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영어 성취도 정도에 따른 창의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변량 분산분석(마노바: MANOVA)를 실시하였고,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올 경우 LSD를 활용한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4.1 한국인 중학생의 창의성 정도

먼저,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Torrance의 창의적 사고력 검사의 신뢰도를 크롬바흐 알파(Cronbach's α)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α 지수가 .984로 매우 높게 나와, 검사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추후 분석 진행의 안정성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한국인 중학생 영어 학습자들의 창의성 정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첫 번째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해 참여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창의성 결과에 대해 각각의 표준 점수를 대상으로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기술통계 결과: 창의성 지수 기술 통계

| | 참여자수 | 평균 | 표준편차 | 최저 | 최고 | 범주 |
|--------|------|-------|--------|----|-----|-----|
| 융통성 | 102 | 89.99 | 23.905 | 45 | 145 | 101 |
| 유창성 | 102 | 87.14 | 17.025 | 56 | 128 | 73 |
| 독창성 | 102 | 87.08 | 17.624 | 50 | 130 | 81 |
| 창의성 총점 | 102 | 88.10 | 19.185 | 51 | 134 | 84 |

기술통계 결과에 따르면 참여 학생들은 Torrance의 창의적 사고력 검사의 하위 세 항목 중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사고나 책략 사용 능력 등을 측정하는 융통성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고, 다음으로는 가능한 다수의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는 유창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리고 주어진 요구에 따라 기존에 존재하는 것과는 다른 아이디어를 생산해 내거나 평범하지 않은 사고를 해내는 능력을 측정하는 독창성 분야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실제 이 세 항목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사후 대응 표본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2 사후 대응 표본 검정 결과: 창의성 지수

| | 평균 | 표준편차 | <i>t</i> | <i>df</i> | <i>sig.</i> |
|-----------|-------|-------|----------|-----------|-------------|
| 융통성 - 유창성 | 2.853 | 9.554 | 3.016 | 101 | .003* |
| 융통성 - 독창성 | 2.912 | 9.845 | 2.987 | 101 | .004* |
| 유창성 - 독창성 | .059 | 4.414 | .135 | 101 | .893 |

* $p < .05$

표2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중학생 학습자들의 경우 창의력의 세부 항목 중 융통성 항목에서 다른 두 항목인 유창성과 독창성에서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유창성과 독창성에 있어서는 기술 통계에서는 유창성이 다소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이 결과는 한국인 중학생 학습자들은 다양한 관점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책략을 사용하는 것에는 보다 능숙한 경향이 있지만, 기존과는 다른 참신하고 독창적인 사고를 해내거나 다수의 아이디어를 생산해 내는 면은 다소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표준화된 답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따라서 어떠한 사건이나 현상을 바라볼 때 기존의 표준화된 답과는 다른 평범하지 않거나 참신한 답에는 다소 인색한 면이 있지는 않은지 등에 대한 물음을 우리의 교육 현장에 제공하고 있다.

4.2 한국인 중학생의 영어 성취도와 창의성

한국인 중학생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성취도 정도에 따른 창의성의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국가수준 영어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와 Torrance의 창의적 사고력 검사가 활용되었다. 국가수준 영어 학업성취도평가는 전국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화된 검사이기 때문에 학교 영어 성적에 비해 보다 객관적으로 영어 성취도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국가수준 영어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는 학생들이 획득한 표준 점수에 따라 기초미달, 기초, 보통, 그리고 우수 학력으로 네 단계로 구분되고, 본 연구에서는 기초미달과 기초학력을 기초학력 그룹으로 묶어 영어 성취도가 각각 다른 세 그룹을 형성하였다. 그 결과 기초학력 그룹에는 총 21명의 학생이, 보통학력 그룹에는 총 54명의 학생이, 그리고 우수학력 그룹에는 총 27명의 학생이 배정되었다.

먼저 각 성취도 그룹의 Torrance의 창의적 사고력 검사 결과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기술통계 결과: 영어 성취도 그룹 별 창의성 지수

| | | 참여자수 | 평균 | 표준편차 | 최저 | 최고 |
|-----|----|------|-------|--------|----|-----|
| 융통성 | 기초 | 21 | 76.48 | 21.988 | 49 | 139 |
| | 보통 | 54 | 91.19 | 24.751 | 45 | 145 |
| | 우수 | 27 | 98.11 | 19.500 | 59 | 133 |
| | 종합 | 102 | 89.99 | 23.905 | 45 | 145 |
| 유창성 | 기초 | 21 | 80.00 | 16.012 | 58 | 119 |
| | 보통 | 54 | 86.44 | 17.304 | 56 | 128 |
| | 우수 | 27 | 94.07 | 15.043 | 70 | 128 |
| | 종합 | 102 | 87.14 | 17.025 | 56 | 128 |
| 독창성 | 기초 | 21 | 78.90 | 17.438 | 50 | 128 |
| | 보통 | 54 | 86.91 | 16.943 | 52 | 130 |
| | 우수 | 27 | 93.78 | 16.935 | 67 | 130 |
| | 종합 | 102 | 87.08 | 17.624 | 50 | 130 |
| 창의성 | 기초 | 21 | 78.57 | 18.253 | 53 | 129 |
| | 보통 | 54 | 88.17 | 19.351 | 51 | 134 |
| | 우수 | 27 | 95.37 | 16.793 | 67 | 130 |
| | 종합 | 102 | 88.10 | 19.185 | 51 | 134 |

영어 성취도 그룹 별 창의적 사고력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창의성 종합 지수를 비롯하여 각 세부 항목 모두에 걸쳐, 우수학력 그룹이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보통학력 그룹 그리고 기초학력 그룹이 뒤를 따르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영어 성취도 우수 그룹이 창의성 검사에 있어서도 뛰어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각 항목의 최저 표준 점수와 최고 표준 점수를 살펴보면, 영어 성취도 점수가 높다 할지라도 창의성 검사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그 반대의 상황도 존재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 성취도 그룹 별 창의성 지수 기술통계 결과가 보여주는 또 한 가지 면은, 모든 그룹이 융통성 측면에서 가장 큰 표준 편차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다양한 관점의 아이디어 생산이나 책략사용과 관련해서는 다른 창의성 측면에 비해 같은 성취도 그룹 내에서도 학생들 간의 차이가 다소 두드러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한국인 중학생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성취도 정도에 따라 창의성의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각 그룹의 창의력 지수가 창의력 종합 지수를 비롯하여, 융통성, 유창성, 그리고 독창성의 다변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결과는 표 4와 표5와 같다. 표4의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는 그룹 간 창의성 지수의 차이가 유의미하므로 각 그룹을 비교할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그룹을 비교한 결과를 표 5가 보여주고 있다. 표5의 그룹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융통성을 비롯한 창의력 지수의 모든 세부 항목과 창의력 종합 지수에서 그룹 간의 차이가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항목별 효과크기도 융통성 항목이 다소 크기는 하나 거의 유사한 정도의 효과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

표 4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영어 성취도 그룹 별 창의성 지수

| Effect | | Value | F | df | Sig. | η_p^2 |
|-----------|---------------|-------|---------|-----|-------|------------|
| Intercept | Wilks' Lambda | .027 | 851.121 | 399 | .000* | .973 |
| Group | Wilks' Lambda | .796 | 2.895 | 798 | .005* | .108 |

* $p < .05$

표 5 그룹 비교 결과: 영어 성취도 그룹 별 창의성 지수

| Factors | Source | SS | df | MS | F | Sig. | η_p^2 |
|---------|---------|-----------|-----|----------|-------|-------|------------|
| 융통성 | Between | 5692.937 | 2 | 2846.469 | 5.417 | .006* | .099 |
| | Within | 52024.053 | 99 | 525.495 | | | |
| | Total | 57716.990 | 101 | | | | |
| 유창성 | Between | 2394.893 | 2 | 1197.447 | 4.410 | .015* | .082 |
| | Within | 26881.185 | 99 | 271.527 | | | |
| | Total | 29276.078 | 101 | | | | |
| 독창성 | Between | 2616.359 | 2 | 1308.180 | 4.504 | .013* | .083 |
| | Within | 28753.013 | 99 | 290.434 | | | |
| | Total | 31369.373 | 101 | | | | |
| 창의성 | Between | 3334.080 | 2 | 1667.040 | 4.877 | .010* | .090 |
| | Within | 33840.939 | 99 | 341.828 | | | |
| | Total | 37175.020 | 101 | | | | |

* $p < .05$

각 그룹 간 창의력 종합 지수 및 세부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그룹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LSD 사후검정(Post-hoc test)을 실시하였다. 표 6은 LSD 사후검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6 LSD 사후검정결과: 영어 성취도 그룹 별 창의성 지수

| | 그룹 간 | 평균 차 | SE | sig. |
|-----|---------|--------|-------|-------|
| 융통성 | 기초 - 보통 | -14.71 | 5.895 | .014* |
| | 기초 - 우수 | -21.63 | 6.670 | .002* |
| | 보통 - 우수 | -6.93 | 5.403 | .203 |
| 유창성 | 기초 - 보통 | -6.44 | 4.238 | .132 |
| | 기초 - 우수 | -14.07 | 4.794 | .004* |
| | 보통 - 우수 | -7.63 | 3.884 | .052 |
| 독창성 | 기초 - 보통 | -8.00 | 4.383 | .071 |
| | 기초 - 우수 | -14.87 | 4.959 | .003* |
| | 보통 - 우수 | -6.87 | 4.017 | .090 |
| 창의성 | 기초 - 보통 | -9.60 | 4.755 | .046* |
| | 기초 - 우수 | -16.80 | 5.379 | .002* |
| | 보통 - 우수 | -7.20 | 4.358 | .101 |

* $p < .05$

먼저, 융통성 항목을 살펴보면 기초학력 그룹과 나머지 두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고, 보통학력과 우수학력 그룹 사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창의력 지수를 보여주는 모든 항목에 걸쳐 융통성 항목에서 기초학력과 우수학력 그룹의 평균 차가 가장 크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기초학력 그룹이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하고 아이디어를 생산해 내며, 다양한 책략을 사용하는 능력이 다른 그룹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 교과 수업에 있어서, 교수자들은 영어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학생들이 어떠한 현상이나 문제 등에 접근할 때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 등을 활용해, 이 학생들의 융통성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유창성과 독창성의 경우는 기초학력과 우수학력 그룹 사이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는 하나의 주제에 대

해 관련된 아이디어를 다수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기존의 표준화된 사고와는 차별화된 참신한 아이디어를 산출해내는 면에 있어서, 영어 성취도가 높은 집단이 기초학력 집단에 비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창의력 종합 지수에 있어서는, 기초학력과 보통학력, 그리고 기초학력과 우수학력 그룹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기초학력 그룹의 나머지 두 그룹과 창의력 세부 항목 및 종합 지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창의력이 현재 사회 및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필수적인 능력으로 꼽히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학교 현장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자들 또한 이러한 결과를 참고하여 기초학력 학생들의 창의력을 신장 시키는데 더욱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제언

최근 전 세계 교육의 핵심은 창의·인성 교육이다. 미래사회는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은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교육과정의 기본 틀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개정 영어교육과정에서 글로벌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과 함께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하였으며, 언어재료, 교수·학습 방법, 평가 영역에 있어서 창의성과 인성을 중요한 요소로서 새롭게 추가하며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인 중학생 영어 학습자들의 창의성의 정도를 살피고, 이를 영어 교과 성취 수준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추후 구체적 교수법 개발 등에 있어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 나아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 영어과 창의성 교육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주목하여 실태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 영어 교육의 과정과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중학생 영어 학습자들의 창의성 정도를 102명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였고, 다음으로 한국인 중학생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성취도 정도에 따른 창의

성의 정도에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Torrance의 창의적 사고력 검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중학생들의 경우 창의력의 세부 항목 중 융통성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고 다음으로는 유창성 분야의 점수가 높았다. 그리고 독창성 분야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이는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 영어교과 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에서도 학생들에게 어떠한 현상이나 문제를 접근 할 때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기존에 제시되어 있는 표준화된 답 이외에 참신한 답을 해내는 활동 등을 해내갈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국가수준 영어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영어 성취도 정도를 세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 간에 창의력 지수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취도 정도에 따라 창의력 종합 지수를 비롯한 모든 세부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융통성 항목과 창의력 종합 지수에서는 기초학력 그룹과 다른 두 그룹(보통학력과 우수학력 그룹)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유창성과 독창성 항목에서는 기초학력과 우수학력 그룹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기초학력 그룹의 경우 나머지 두 그룹과 창의력 세부 항목 및 종합 지수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교수자들은 영어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학생들이 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는 발산적 사고 유도 질문 등을 활용해, 이 학생들의 창의성을 전반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Ma, 2017). 앞으로 사회를 책임지고 나아갈 청소년들에게 창의력이 필수적인 능력임을 감안할 때, 학교 현장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참고하여 기초학력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에 더욱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창의성교육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 연구가 국어나 과학, 그리고 도덕 등의 교과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영어 교과의 경우 2009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와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등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영어교육은 대학입시 등을 위한 시험에서 보다 나은 점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실제 수업 내용과 교수 방법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융합되어 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그동안 영어교과를 의사소통과 정보 활용을 위한 기능교과로 여기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목표와 실제 현장 수업 내용 및 교수방법이 부합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미래사회가

다가올수록 그에 맞는 창의적 융합 인재 육성에 대한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창의성 교육에 대한 기본 개념과 이론을 확실히 하고, 우리나라 영어학습자의 일반적 영어 능력 향상과 더불어 영어과 고유의 창의성 신장 수업 모델 및 구체적 지도안 등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자와 교수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Works Cited

- Ahn, Eun-ok. *Effects of creative thinking enhancing activities on underachievers in technical high school*. MA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2012. Print.
- Cheng, Vivian. M. Y. Infusion creativity into Eastern classrooms: evaluations from students' perspectives. *Thinking Skills and Creativity* 6 (2011): 67-87. Print.
- Cho, Young Ah., and Seong Rok Oh. Developing creativity through English reading acquisition: Focusing on Korean EFL college students. *The Mirae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19.4 (2014): 513-536. Print.
- Cho, Youn Soon, Hye Young Chung, and Kyong Mi Paek. Exploring characteristics of teaching and learning to foster creativity: A case study on four primary schools in the United Kingdom.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3.2 (2010): 95-120. Print.
[조연순, 정혜영, 백경미. 「창의성 증진 요소와 교수, 학습과정 특성 탐색: 영국 초등학교 창의성 교육 사례연구」. 『초등교육연구』 23.2 (2010): 95-120.]
- Cho, Youn Soon, Jin-Sook Seong, and Haejoo Lee. *Creativity education: Developing creative problem-solving abilities*. Seoul: Ehwa Women's University Press, 2008. Print.
[조연순, 성진숙, 이혜주. 『창의성 교육: 창의적 문제해결력 개발과 교육 방법』.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 Choe, In Soo. *Creativity*. Seoul: Sam and Parkers, 2011. Print.
[최인수. 『창의성의 발견: 창의성은 언제, 어디서, 무엇에 의해, 어떻게 발현되는가』. 서울: 쌤앤파크스, 2011.]
- Cropley, Arthur. J. Creative intelligence: A concept of true giftedness. *European Journal of High Ability* 5.1 (1994): 6-23. Print.
- Guilford, Joy Paul. Structure of intellect. *Psychological Bulletin* 53.4 (1956): 267-293. Print.
- Han, Jong Im, Hae Jin Oh, and Young Sook Kim.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nglish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based on creativity techniques to enhance Korean EFL learners' creativity. *Foreign Languages Education* 20.4 (2013): 175-210. Print.

- [한종업, 오혜진, 김영숙. 「한국 영어학습자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창의성 교육기법 기반 영어 교수·학습 활동 개발」. 『*Foreign Languages Education*』 20.4 (2013): 175-210.]
- Hornig, Jeou-Shyan., Jon-Chao Hong, Lih-Juan ChanLin, Shih-Hui Chan, and Hui-Chuan Chu. Creative teachers and creative teaching strateg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9.4 (2005): 352-358. Print.
- Hu, Weiping., and Pjilip A. Adey. scientific creativity test for secondary schoo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24.4 (2002): 389-404. Print.
- Jeon, Junhyun. *The Influence of critical literacy through problem-posing questions on creativity thinking*. Unpublished MA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2014. Print.
[전준현. 『문제 제기식 질문을 활용한 크리티컬 리터러시 교육이 창의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서울, 2014.]
- Kaufman, James C., Jonatha. A. Plucker., and Plucker J. Baer. *Essentials of creativity assessment*. New Jersey: John Wiley & Sons, 2008. Print.
- Kim, Kyong Hahn, and Kyeong-hee Rha. *Education for creativity and character, and English language curriculum*. Paper presented at the 2014 SIG conference of the Korea Association of Teachers of English, Seoul, Korea, 2014. Print.
[김경한, 나경희. 「창의 인성 교육과 영어과 교육과정」. 『한국영어교육학회(편)』 2014년 SIG 학술대회 발표 논문, 서울, 2014.]
- Kim, Young Sook., Jong Im Han, and Hae Jin Oh. English lesson models for the development of creativity and character through cooperative learning. *Modern English Education* 14.4 (2013): 207-239. Print.
[김영숙, 한종업, 오혜진.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영어 수업 모형: 협동학습을 중심으로」. 『현대영어교육』 14.4 (2013): 207-239.]
- Kind, Per M., and Vanessa Kind. Creativity in science education: Perspectives and challenges for developing school science. *Studies in Science Education* 43.1 (2007): 1-37. Print.
- Lew, Kyoung Hoon, and Choon Sung Park. A study of differences amo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in creativity. *Korean Society for Creativity Education* 13.2 (2013): 43-60. Print.
[유경훈, 박춘성. 「초중고 학생의 창의성 발달 특성 연구」. 『창의력교육연구』 13.2 (2013): 43-60.]
- Ma, Jee Hyun. Effects of teacher question types on developing L2 learners' English ability and creativity.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22.2 (2017): 25-48. Print.
- Min, Ki Young, and Chan Ho Kim. The study of purpose of developing creativity-interdisciplinary type human resources. *Culture and Convergence* 38.3 (2016): 99-118. Print.
[민귀영, 김찬호.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관한 연구」. 『문화와 융합』 38.3

(2016): 99-118.]

Ministry of Education. 2009 revised curriculum: An introduction to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s curriculum, No. 2009-41, 2009. Print.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41호, 2009.]

Ministry of Education. English language curriculum, No. 2011-361, 2011.

[교육과학기술부. 「영어과교육과정. 고시」. 제2011-361호, 2011.]

Osborn, Alex. F. *Wake up your mind: 101 ways to develop creativeness*. New York: Scribners, 1952. Print.

Park, Choon Sung. The creative character education evolved in school. *Korean Society for Creativity Education* 10.2 (2010): 61-72. Print.

[박춘성. 「창의·인성의 특성과 학교에서의 발현을 위한 방안 탐색」. 『창의력교육연구』 10.2 (2010): 61-72.]

Roh, Seungbin. A study of the recognition of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comparison with Taiwanese students regarding creative English learning. *Thinking Development*, 8.2 (2012): 47-81. Print.

Starko, Alane J. *Creativity in the classroom: Schools of curious delight* (4th ed.). New York: Routledge, 2010. Print.

Torrance, E. Paul. *Guiding creative tal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62. Print.

_____. *The Torrance test of creative thinking: Norms*. Bensenville, IL: Scholastic Testing Service Inc, 1990. Print.

_____. *The Torrance test of creative thinking: Norms-technical manual-figural(streamlined) forms A & B*. Bensenville, IL: Scholastic Testing Service Inc, 1998. Print.

Weisberg, R. Weisberg. *Creativity: Understanding innovation in problem solving, science, invention, and the arts*.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2006. Print.

Yang, Yun Jeong. Children's English education through storytelling. *The Journal of Mira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18.2 (2013): 203-224. Print.

Yoo, Han Goo. *Present situation and tasks of elementary education for character*. Paper presented at the 2007 annual conference of the KSSEE, Seoul, Korea, 2007. Print.

[유한구. 「초등학교 인성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초등교육학회』 2007학년도 연차학술대회 발표 논문, 2007.]

마지현 (전남대학교/부교수)

주소: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용봉동)

이메일: jeehyun@jnu.ac.kr